월드컵과 불교

참선·다도·예불… '가장 한국적인 문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사

서울시가 2000년에 실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주 유럽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참선, 다도, 예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다.

미주 유럽인들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참선, 다도, 예불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은 것은 최근 일고 있는 서구사회의 불교열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서구인들의 경우, 티베트불교와 남방불교를 접해온 만큼 한국불교에 대해서는 낯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업스님(국제포교사회 부회장)은 "외국인들은 개인적인 가치관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스님들이 함께 모여 예불모시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한국의 선불교 전통을 설명하고, 전통 선을 체험케 하여 한국불교의 진수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애스님(그리스)은 "스님들과 다각실에 둘러앉아 한국 차를 발전시킨 초의 선사에 대한 얘기 등을 하며 차를 마시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이채롭게 다가갈 것이다"며 "도자기 만들기 등 실제 몸으로 해보는 체험도 한국문화의 깊이와 생활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인상 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결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동양권 관광객들은 사찰구조 탱화 고궁 박물관 코엑스 63빌딩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찰안내와 지역 관광코스의 연결도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동양권 관광객들은 사찰 예법을 함께 하는 것 보다는 자신들의 나라와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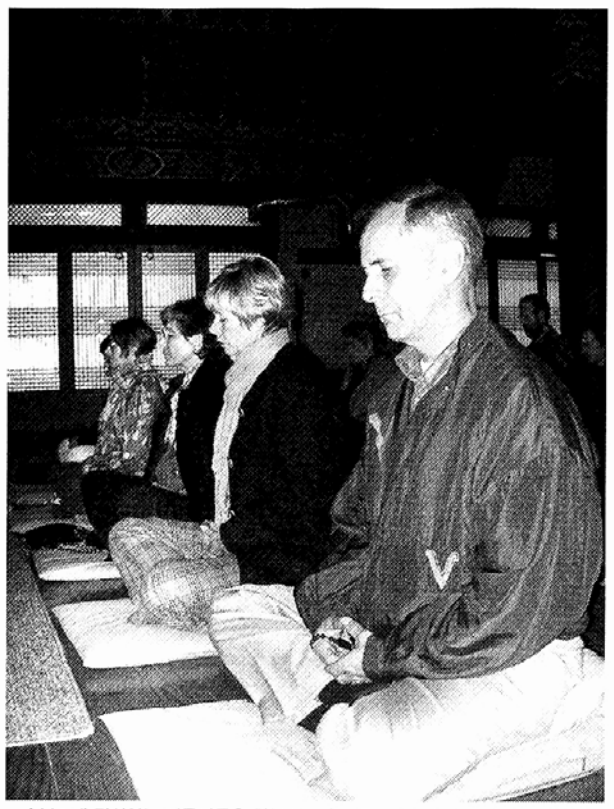
미주·유럽인-동양정신 '신선한 감동'
아시아인-가람배치·탱화 등 관심

일보스님(방글라데시)은 "원로스님들의 선적인 법문과 사찰 구조에 대한 설명이 가장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본다"며 "현대적인 시설물과의 연계코스를 계발해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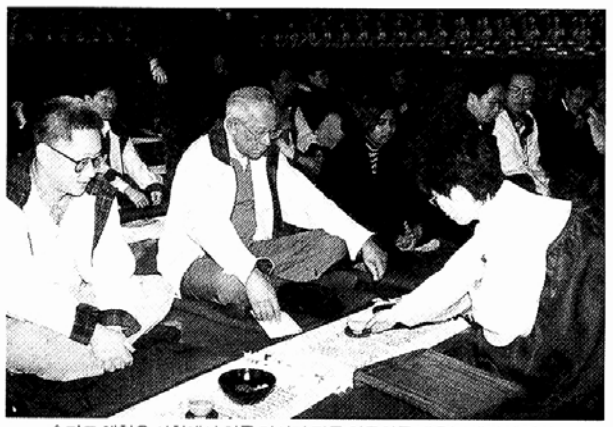
법전스님(중국)은 "불화 단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그려보는 체험이 재미있을 것"이라며 "종이위에 부처님을 그려보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모습을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계사에서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정수명씨는 "지난해 10월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가 집계한 외국인의 불교문화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사찰구조와 단청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며 "외국인들은 자국에 돌아가서도 종종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여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템플스테이를 잘 운영할 경우 상당한 포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사업을 처음으로 제안한 정무형(한림대 국제대학원)교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의 불교가 전세계 불교흐름을 선도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템플스테이 사업도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시작해야 외국인 포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은 한국불교의 전통선수련법인 화두선에 관심이 많다. 지난 11월23일 봉선사에서 열린 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



◇다도 체험은 사찰에서 차를 마시며 전통 차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된다.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

템플스테이 기간 중 외국인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프로그램은 예불, 참선, 발우공양, 다도, 전통등 만들기, 범패시현, 대장경 인경, 선무도, 녹차제작, 민속놀이, 탑돌이 등 다양하다. 이중 대표적인 전통사찰 체험프로그램을 간추려 소개한다.

●**예불** : 대표적인 불교의식인 예불을 통해 불교적인 장엄미와 오랜기간에 걸쳐 축적된 불교음악을 체험한다. 특히 외국인들이 예불에 참가하여 범종소리의 웅장함과 운판, 법고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깊이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해당언어를 우리나라 의식에 맞춘 자료집을 준비해 본다.

●**참선** : 견성성불에 이르는 방법이며, 개인의 정신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조사선의 난해함 보다는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참선법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경우는 좌식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뒷방석을 두 세 겹으로 두껍게 깔아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발우공양** : 발우공양 체험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며, 현대인의 건강에 적합한 사찰음식문화의 경험을 준다. 발우공양법은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발우공양 습의교육을 실시하여 충분히 인식시킨 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도체험** : 조선시대 초의선사에 의해 재정립된 한국불교 차문화와 녹차의 효험들을 소개한다.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예법을 지키며 녹차의 맛을 느끼도록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편안한 분위기 속에 차를 마시며 사중스님들과 외국인들이 불교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찰안내** : 불교의 전체교리가 화현돼 있는 사찰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필요하다. 사찰의 당우와 문화재 소개는 한국문화의 특이성과 본질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다. 특히 불교에 대한 이해를 가장 쉽게 전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교리와 설화를 곁들여 쉽게 전하도록 한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사찰인 만큼 이해도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등 만들기** : 무명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깨달음에 이르려는 큰 원력을 담고 있는 등의 의미를 설명한다. 등을 만들어 불을 밝힘으로써 개인의 행복은 물론 일체중생의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전통의 등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한다. 등 제작은 소요시간에 따라 컵등이나 작은 연등 만들기로 대체하는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만하다.

●**탑돌이** : 달밝은 산사의 마당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며 탑을 돌며 염불하는 탑돌이는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탑을 한바퀴 돌 때마다 탑제를 올리고 축원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한다.

●**선무도 체험** : 외국인들이 선체험과 함께 관심갖는 분야가 동양전통무술이다.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선무도에 대한 설명과 체험을 통해 정신과 육신의 조화를 느끼도록 한다.

외국의 사례

일본의 사찰숙박

일본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사찰숙박(宿坊)'이라고 부른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일본인들은 사찰을 성지로 가꾸는 동시에 신도나 참배객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다. 사찰이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숙박시설을 갖추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템플스테이는 사찰요리, 온천, 문화재, 불교미술, 정원 등을 보고 즐기는 것은 물론 일본 선(Zen)과 다도 체험 등 고급 문화관광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인지 고급 호텔과 연계된 홍보 및 예약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사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숙식 등을 예약할 수 있다.

교토의 청수사 앞길등 사찰 사하촌 역시 잘 정비되어 있다. 일본의 전통가옥이 밀집한 사하촌 거리에는 아름다운 도자기집과 전통과자집, 찻집, 전통예술 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어 하나의 문화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템플스테이는 국제적인 행사에 맞춰 일시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계인과 국내인을 상대로 한 체험관광 사업의 성격도 갖고 있다. 월드컵은 일본과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우리 전통문화를 중국 일본과 비교해 그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대 경연장이 될 전망이어서, 수십년의 전통을 가진 일본 템플스테이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의 수도원 개방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가톨릭 수도원을 숙박시설로 활용해 가톨릭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수도원이 성지 순례자나 성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전통이 있어 수도원 숙박은 자연스러운 광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도원이 완전히 호텔이나 호스텔로 바뀐 경우도 50여 곳에 이른다. 이런 수도원 호텔은 고요히 명상하며 쉴 수 있어 여행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상의 홍보 및 예약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수도원 호텔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8만여 명(외국인은 3만5천여 명), 이제는 전문 호텔업자들이 운영하는 인기 관광코스가 되었다.

스페인에서 수도원 호텔이 많이 생긴 이유는 신도 격감으로 인한 수도원 자체의 재정난, 지역의 개발요구, 유럽내 최대 휴양지인 스페인의 숙박시설난, 가톨릭 선교차원의 개방, 이색 관광상품으로 수요급증 등으로 분석된다. '수도원에서 머물며 숙식'이라는 이러한 관광상품은 성지순례와 문화유적 답사라는 두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경우는 유럽인들에게 티베트의 어느 사찰에서 며칠동안 머물며 체험하는 성지순례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엄숙한 수도원이 호텔로 전환되는 것은 상업화라는 부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유럽의 기독교를 다시한번 돌이켜보고 새로운 믿음의 계기를 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찰수련회

19세기부터 시작된 프랑스 불교는 60년대 말부터 교세가 커지고, 90년대부터 수행에 관심을 갖는 불자들이 크게 늘고있다. 가톨릭(68%) 개신교(6%)에 이어 불교(5%)가 3대 종교를 차지하는 프랑스에서는 가족단위의 수행처가 템플스테이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수백개의 선불교센터와 티베트불교 명상센터가 있다. 선센터에서는 큰 성을 매입, 전용 수도장으로 사용해 연간 수천여 명 이상이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산사수련회가 새로운 여름 문화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가족단위 수행처로 가장 즐겨 찾는 곳이 프랑스 남부 보르도지방에 있는 '자두마을'이다.

매년 1500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자두마을에서는 명상과 기도, 설법, 묵언 등의 수행프로그램이 24시간 운영된다. 자두마을에 소속된 타지역의 100여 개의 사찰도 개별적으로 적당한 수행비를 받고 숙박을 겸한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두마을 방문자의 절반이상이 외국인인 점은 우리나라 사찰이 외국인 포교를 위해 배워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김재경 기자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 화 사

조 실 진 제
주 지 성 덕

총 무 지 우 기 획 법 능 교 무 응 각
재 무 혜 안 사 회 성 묵 포 교 종 본
호 법 혜 선

승가대학 강주 해월 금당선원 선원장 영진

外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전화 : 053) 982-0101~2 팩스 : 053) 985-4405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조 실 석 주
주 지 원 혜
신도회장 무구 전봉수

사부대중 일동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가족과 함께 하는 도량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우135-090)
TEL : 종무소 02)511-6070~4